



# 축 산 정 보



## 한·미 FTA 보완대책, 시설 현대화 자금 등 지원 농림부, 추가 보완대책 20조 4000억원 지원

정부가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농업부문 보완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여기에는 양돈협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시설 현대화 자금지원 등이 일부 반영되었다.

최근 발표 자료에 따르면, 농림부는 한·미 FTA 농업부문 국내 보완대책 추진을 위해 향후 10년간 20조4천억원을 투융자 지원하여 농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가운데 축산분야는 시설 현대화 지원 및 우수 브랜드경영체 육성 등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품질 고급화를 촉진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추진되고 있는 119조 농업·농촌 투융자계획을 123조 2000억원으로 늘려 기존 한·미 FTA 지원사업 배정액 7조원에 2조원을 추가 증액하고, 투융자 소요가 적거나 변경된 사업을 조정해 마련된 3조1000억원과 2014~2017년 신규로 증액된 8조3000억원 등 총 20조4000억원의 투융자 재원을 마련해 투입키로 했다.

투융자자금 재원은 FTA기금·농업특별회계·축산업발전기금·농안기금 등 정부 재정에서 18조2000억원을 투입하고 농협자금에서 2조2000억원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양돈의 경우, 브랜드 참여 농가에 축사시설 현대화 자금 등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별 소모성질환 전문 자문단 운영을 통해 질병 발생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08년부터 공동지원화 시설을 연 15개소씩 설치하고 액비유통센터를 연 15개소 이상 지정하여 액비유통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가축분뇨 감축 및 퇴·액비 이용 활성화에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한편 우량 종돈 선발 및 우수 양돈브랜드 육성을 위하여 모돈 100두 이상 종돈장 10개소를 선정하여 '08년 돼지개량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생축수송 특장차량을 지원해 운송 중 가축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30여개의 우수 양돈브랜드 경영체를 중심으로 '17년까지 브랜드 비중을 80%까지 확대토록 할 방침이다.

특히 2008년에는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도축세를 폐지하여 축산농가의 부담을 경감토록 하고, 축산물의 연중 전시 홍보가 가능한 농축산 전시홍보관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단기적 수입피해 보전 방안으로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도를 개편 운용키로 했다.

## PED·PRRS·TGE 등 질병 제3종 전환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최근 농림부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제3종 가축전염병을 신설하여 제2종 가운데 14개 질병을 제3종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제2종으로 분류되어 있던 TGE(돼지전염성위장염)와 돼지단독, PRRS, PED, 돼지위축성비염 등 돼지 질병은 제3종으로 분류된다. 한편 이들 질병이 발생하면 격리 및 억류 또는 이동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가축사육시설 폐쇄 조치토록 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또 돼지콜레라 및 아프리카돼지콜레라를 각각 돼지열병과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농림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1월 개정령을 공포한 후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 양돈농가 63% 돈사 신·개축 희망

양돈농가의 63%가 돈사 시설개선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부가 지난 5월 1천두 이상의 돼지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전국 9개도에서 실시한 축사시설현황 일제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 가운데 돈사 신축을 희망하는 양돈농가는 26.8%,

개축을 희망하는 농가는 36.0%로 집계되어 총 62.8%가 신축 또는 개축을 희망하고 있었으며, 타 축종에 비해서도 신·개축을 희망하는 농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1만두 이상의 농가에서 신축 의향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개선 사유로는 축사 및 설비의 노후화가 가장 큰 원인이었고, 신·개축 시설로는 전체적인 개선을 희망했으나 환기시설의 개선을 가장 선호했다. 돈사형태로는 무창돈사(67.2%), 원치돈사(44.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재 돈사형태로는 원치돈사 77.2%, 무창돈사 51.3% 등으로 매년 무창돈사의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으며, 분뇨처리는 슬러리 72.3% 스크레파 38.5% 등으로 나타났다. 환기방식으로는 자연식기계식 혼합이 53.1%, 원치자연식 46.1%, 기계식무창 44.1% 등으로 규모가 클수록 기계식 무창 비율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돼지 적정 사육 면적 완화 검토

농림부 두당 0.89㎡ → 0.70㎡

돼지의 적정 사육면적 기준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는 지난 11월 5일 축사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 기준 검토 회의를 열고 현재 돼지의 적정면적 기준의 경우 소모성 질병의 원인이 밀사에 있는 것처럼 강조될 시기에 설정, 강화됐다는 양돈농가와 협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일관경영의 경우 두당 0.89㎡에서 0.70㎡로 조정할 것을 검토키로 했다.

농림부는 또 현재 자돈, 육성돈, 비육돈 3단계를 어린 자돈, 후기 자돈, 육성돈, 비육돈 4단계로 세분화하는 한편 무항생제 축산물 기준, 표준설계도 사육밀도 기준도 향후 개선키로 했다.

## 돈육 브랜드 규모화 유도해야

국내 돈육 브랜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적정수준 이상의 출하물량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브랜드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돈육 브랜드의 규모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농협중앙회와 양돈수급안정위원회가 '돈육브랜드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국축산경제연구원에 조사의뢰하여 발표한 연구 결과, 국내 돈육산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317개에 달하는 돈육브랜드 난립으로 꼬매고, 낮은 인지도와 편중된 돈육 브랜드, 특정 부위의 소비편중 심화, 마케팅 전략 부재 등이 브랜드 사업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계열화된 광역 돈육브랜드 육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으며, 아울러 지역특성을 반영한 소규모 지역특화 브랜드 육성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 악취제거 이산화염소 분사장치 개발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은 가축분뇨 처리 시 발생하는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이산화염소 분사장치'를 개발해 산업체(주식회사 데오테크)에 기술을 이전했다.

축산과학원에 따르면, 이 장치는 이산화염소를 이용한 화학적 탈취시스템으로 인체에 무해하고 시스템 가동 후 잔류염려가 전혀 없는 안전한 방법이며 설치비도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스과 같은 부식 요소에도 강한 플라스틱자재(PP)를 이용, 이산화염소를 충전할 수 있는 카트리지와 이산화염소 분무장치, 타이머와 공기조절장치, 카트리지 수납부의 온도조절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축산과학원은 기계식 퇴비사에서 악취저감장치를 장착해 검증을 실시한 결과, 악취의 주성분인 암모니아와 황화수소 등이 80% 이상 제거됐다고 설명했다.

▣ 문의 :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 송준익

031)290-1713

## 가축 RFID 관리체계 국가표준 제정

가축 RFID 관리체계가 최초로 국가표준으로 제정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동물 RFID 규격 3종이

금년내 KS규격으로 제정될 전망"이라며 "광우병, 구제역 등 가축질병이 발생할 경우 이력추적이 가능해져 단시간 내 효과적인 방역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가축의 RFID 정보를 도축 및 육가공, 유통단계에 그대로 연계가 가능해져 국내 축산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동물 RFID 관련 KS규격이 제정되면 지금까지 농림부와 애견협회, 마사회, 동물관련 단체에서 각기 다르게 사용해오던 코드체계와 RFID 태그 등이 통일화되어 체계적인 가축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기술표준원은 2009년까지 동물 RFID 관련 태그와 판독기의 적합성을 평가할 수 있는 KS규격 5종을 추가로 제정하고, 정부부처와 축산관련 업계에 KS규격을 적용한 가축 RFID 사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동물 RFID : 가축, 야생동물, 조류 등 동물에 축종, 연령, 원산지 등을 기록한 태그를 부착하고 무선주파수를 이용하여 해당 정보들을 비접촉으로 인식하는 기술

## 농림사업 집행따라 패널티 부여 등 평가강화

정부 농림사업 추진체계 전면개편

농림사업 집행에 따라 우수한 사업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집행이 부진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 농림사업에 대한 평가가 강화된다. 농림부는 농림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농림사업 추진체계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사업 추진체계를 표준화함은 물론 체계적인 점검 및 평가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부당행위에 대한 패널티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는 농림사업에 대해 사업별로 성과지표와 측정방법 등을 제시하고 매년도 사업평가를 실시하며 성과지표 달성여부를 위한 예산잔액 및 감액을 연계하기로 했다. 또 농림사업 표준프로세스를 마련하여 유사사업간 절차를 맞추고, 농림사업의 서식표준화를 Agrix(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와 연계하여 실시하기로 했다.

단 이외에도 사업평가를 통해 우수한 사업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집행이 부진 또는 부당행위로 집행됐을 경우에는 보조금의 취소 및 반환은 물론 차년도 예산배정 제외 등 패널티를 부여하기로 했다.

## 폐사 돼지 발효처리 허용

농림부 전염병법 개정

그동안 재활용을 위해 열처리를 거쳤던 폐사축을 발효로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최근 농림부는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통해 질병에 의해 폐사한 돼지나 소를 사료 또는 비료의 원료로 재활용할 경우 농가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열처리 외에 발효처리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이 되는 폐사축은 돼지 오제스키병, 결핵병, 브루셀라병에 의해 폐사한 경우로 병원체가 열에 약해 열처리를 거쳐 재활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농림부는 현실적으로 열처리로 모두 처리하기에 한계가 있어 발효처리를 허용하고 발효처리시설 기준을 정해 고시키로 했다.

## 10월 도축두수 126만두... 3년만에 최고

10월 돼지 도축물량이 올해 최고치를 보이면서 04년 12월 이후 3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 축산물 등급판정소에 따르면 10월 등급판정물량은 126만5천여두로 지난달 99만6천여마리에 비해 27%, 지난해 동월 108만마리 대비 17%가 각각 증가했다.

이는 금년은 물론 04년 12월 138만마리 이후 월별 출하량으로는 최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출하물량 증가에 따라 10월 돈가는 100kg 기준 20만1천원으로 전달 22만9천원 대비 12.6%가 떨어졌지만 지난해 동월 18만5천원에 견줘서는 8% 가량 높은 수준을 형성했다

## 돼지 부산물 수입 감소세

돼지 부산물 수입량이 크게 감소했다.

최근 수의과학검역원에 따르면 9월 돼지고기 부산물 수입량은 5천700톤으로 8월 8천400톤에 비해 32% 가량 줄어 올 들어 가장 적었다. 또한 지난해 동월 1만 여톤에 견줘서는 절반 가까이(4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3분기 수입량은 2만2천여톤으로 전분기 2만8천여톤 대비 20.2%, 06년 3분기 3만3천톤보다 33%가 각각 감소했다. 또 9월말 기준 7만9천여톤으로 일년 전 9만7천여톤보다 18% 이상 적게 들어온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돼지 부산물 수입량이 감소한 것은 국내 돼지 출하물량 증가와 돈가 하락으로 수입 부산물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 햄·소시지 수입 증가세

9월말 2만3백톤 전년비 5% 증가

햄·소시지 등 식육가공품 수입이 지난해보다 늘었다.

최근 수의과학검역원에 따르면 9월말 식육가공품 수입량은 2만300톤으로 지난해 동기간 1만9천톤에 비해 5% 가량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햄 3천449톤, 소시지 4천727톤, 기타 1만2천톤으로 햄과 소시지는 작년보다 각각 70%, 7.5%가 많았던 반면 기타 가공품은 6% 가량 감소했다. 한편 분기별로는 3분기 수입량이 6천642톤으로 전분기 6천221톤, 06년 동기간 5천783톤 대비 6.8%, 14.8%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 종돈 선호형질 1순위 증체량

축산원조사 구입할 때 능력 가장 중시해

양돈농가들은 종돈 구입 시 선호하는 형질로 일당증체량을 가장 중요시 하고 있다.

축산과학원은 양돈농가들을 대상으로 종돈 구입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종돈 구입 시 선호하는 형질로 △일당증체량 24.7% △산자수 24.4% △등지방두께 19.5% △육질 17.4% △사료요구율 13.3%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돈구입 시 고려사항으로는 △종돈 능력 28.5% △위생방역 및 청정도 20% △종돈 가격 19.4% △종돈장 기술수준 12.8% △종돈장 서비스 10.2% △종돈수송방법 9% 차례로 응답했다.

이들은 또 종돈산업발전을 위해 △종돈산업 체제개선 39% △세제지원 17.6% △종돈구입 자금지원 16% 순으로 필요사항으로 지적했다. 이들의 종돈 확보는 △농장검정이 59%를 차지, 검정소 검정(26%)과 수입(15%)보다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돈육 수입량 작년치 육박

돼지고기 수입량이 다시 늘었다.

최근 농림부에 따르면 10월 돼지고기 수입량은 1만6천여톤으로 전달 1만700톤에 비해 49.6%가 증가했으며 지난해 10월과 같았다.

이 가운데 냉장은 1천200톤, 냉동 1만4천700톤으로 전달 대비 각각 29.7%, 51.5%가 늘어 냉동돈육 수입량이 더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로써 10월말 돼지고기 수입량은 20만9천여톤으로 지난해 동기간 16만5천톤보다 26.2%가 많았으며 06년 수입량인 21만톤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위별로는 삼겹살 8천700톤, 목심 3천500톤, 갈비 1천800톤 순으로 9월에 비해 각각 47.5%, 42%, 41.8%가 늘었다. 국가별로는 미국산이 3천300톤으로 한달전 대비 72.6%가 늘어 다시 1위로 올라섰다. 그 다음은 칠레 2천500톤, 캐나다 2천300톤, 프랑스 1천500톤 순으로 전달보다 각각 18.9%, 47.5%, 52.1%가 많이 들어왔다.

### EU 돼지 생산비 미국보다도 낮다

양돈협회 자료에 따르면, EU는 미국보다도 돼지 생산비가 낮아 막대한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세계 최대 수출보조금까지 지급하고 있어 EU 돼지고기 시장이 개방되면 미국보다도 더 위협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양돈농가의 지난해 비육돈 생산비는 17만4천으

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 또한 정부 발표자료에 불과하고 실제적으로는 생산비가 더욱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이 가운데 미국은 생산비가 13만3천원, EU는 12만1천원에 불과해 국내 생산비와 큰 격차를 보이는 것은 물론, EU는 수출보조금까지 지급될 경우 생산비가 10만3천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어 EU의 경쟁력이 미국보다도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EU는 세계 최대 수출보조금 지급 국가로 돼지고기 1kg당 311원(정육기준, 정육률 50%)의 수출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EU와의 FTA 협상시 미국과 동등한 수준으로 양허를 하게 될 경우, 국내 양돈농가가 입는 타격은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A)	유럽(덴마크)	
133,500원	생산비(B)	수출보조금 적용 비용(C)
	121,000원	103,895원
생산비 비중(B/A)	수출보조금 적용 생산비 비중(C/A)	
90.6%	77.8%	

### 동물운송 세부규정 마련 전망

동물운송에 대한 세부규정이 마련, 시행될 방침이다. 최근 농림부는 지난 1월 26일에 공포(1년 후 시행)된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법률안과 관련 동물운송에 관한 세부규정안을 마련하고 관련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동물운송 세부규정안에는 운송 중에 동물이 부상하거나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운송기간을 최소화하고, 운송수단은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도록 설계 유지토록 했으며 운송 중 주기적으로 동물이 처한 상태를 점검하는 등 운송의 일반원칙을 마련하였다. 이외에도 운송을 하지 말아야 할 동물을 정하고, 아울러 차량운송의 경우 차량막을 설치하고 돼지 운송 시 적재함 내부에 칸막이를 설치해야 하는 등 운송수단의 구비조건도 정했다.

또한 동물 상·하차 규정 및 운송동물의 취급규정, 운송밀도 등을 마련하여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농림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세부규정안에 대한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시할 예정이며, 고시한 날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 플로르퀴놀론계 항균제 사용 금지

검역원 내년 7월부터 시행

수의과학검역원은 최근 관련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축산물 안전성 확보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플로르퀴놀론계 항균제(시프로플록사신, 노플록사신, 페플록사신, 오픈록사신 등 4종)를 08년 7월부터 국내 제조 및 수입을 금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검역원은 해당 제제의 원료수입을 즉시 중단토록 하는 한편 해당업체(40업체 134품목)로 하여금 08년 6월30일까지 당해품목의 허가증을 반납토록 조치했다.

### 양돈수의사회, 세계 대회 유치에 총력

양돈수의사회가 오는 12년 개최되는 IPVS(세계양돈수의사대회)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내년 6월 20차 대회에서 투표를 통해 12년 22차 개최지가 선정됨에 따라 수의사회는 9월 한국유치준비위원회를 구성, 본격적인 대회 유치작업에 착수했다. 이어 위원회는 지난 10월 국내 개최지를 제주ICC(국제컨벤션센터)로 확정하고 제주도와 협약을 맺어 대회 유치를 위해 공동 노력키로 했다. 아울러 내년 3월 제주 ICC에서 08년 연례세미나를 열고 마지막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 돈사, 무허가 축사 비율 가장 낮아

올인 - 올아웃 실시 여지 많아

현재 설립돼 있는 축사 가운데 돈사의 무허가 축사 비율이 축종 중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농림부에 따르면 전국 9개도 한·불갈 젖소, 돼지, 닭 사육농가 중 축산 전업농 육성대상자 규모이상

의 농가를 대상으로 5~6월 2개월간 '축사시설 현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돈사 무허가 비율이 34.3%로 닭 47.9%, 젖소 45.1%, 한육우 37.5%에 비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돈농가들은 농장의 올인-올아웃 가능 여부에 대해 가능하다 58.4%, 불가능하다 65%로 응답했는데 특히 규모가 클수록 올인-올아웃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농림부는 분석했다.

양돈장의 환기 방식은 자연식기계식혼합형이 53.1%로 가장 높았으며 원치자연식의 경우 46.1%, 기계식무창식 44.1%로 나타났다. 규모가 클수록 기계식 무창 비율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농가들의 급이라인 평균 사용년수는 8.1년, 급수라인은 8.3년, 전기 시설은 8.2년, 바닥재는 9년으로 나타났다.

## '2009 축산박람회에서 만나요'



2007대전국제축산박람회 결과 보고회가 지난 11월 5일 호텔센트로에서 개최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박람회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축하하며 2009년 축산박람회를 기약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박람회 추진경과 및 세부행사 내용 결과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박람회 기간 동안 참가업체와 참관객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가 이어졌다. 설문조사를 통해 참관객들은 대전 KOTREX가 박람회 장소로 적합하다고 응답했으며, 박람회가 참관객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차기 박람회에서는 시설이나 서비스 등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이번 박람회 대회장인 남호경 한우협회장은 올해 박람회가 국제적인 박람회로 자리매김했다며 2009년에는 지금까지의 경험을 살려 더욱 완벽한 박람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네덜란드산 돈육 수입위생조건 완화

프랑스에 이어 네덜란드와 아일랜드산 돼지고기 수입위생조건이 완화됐다.

농림부는 네덜란드와 아일랜드산 돼지고기 수입위생조건 일부 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이를 통해 이들 국가의 돈육 수입위생조건 중 돼지콜레라 비발생 조건을 국제기준 및 타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국가 비발생' 조건을 '농장 비발생' 조건으로 개정했다.

## 남북 '양돈협력사업' 본격 추진

평양 일대 상시 사육두수 5천두 규모 진행

남과 북은 지난 11월 5일 개성에서 제1차 남북농업협력 실무접촉을 개최하고 평양에서 '양돈협력사업'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남북은 남북농업협력사업 중 우선 시범적으로 축산협력사업을 착수하되, 평양시 강남군 고읍리 일대에 상시 사육두수 5천두(연산 1천톤, 사업기간 2년) 규모로 양돈협력사업을 우선 진행하고 성과에 따라서 확대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빠른 시일 내 양돈협력사업을 협의 처리하는 총괄 이행기구를 지정하여 상대측에 통보하고, 11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남북전문가 공동으로 현장답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남측은 양돈협력사업 관련 시설건축과 종돈, 사료 등 사육에 필요한 자재와 장비, 물자를 차관방식으로 제공하고, 북측은 토지, 전력, 용수, 노동력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한편 남북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행을 위한 제2차 남북농업협력 실무접촉을 올해 중 개성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양동**